



## 생각해 봅시다

### 바람의 축제, 제주 영등굿(“영등할망 오람수다”)

미역씨 뿌립니다. 소라씨, 전복씨 뿌립니다.

많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음력 2월은 영등달이다. 풍농과 바람의 여신(女神)인 영등할망이 오시는 달이다. 영등할망이 제주에 들어오는 2월 1일(3월19일)부터 영등송별제가 있는 2월 14일(4월1일)까지 유난히 바람이 드세다. 그 영등바람을 몰고 제주를 찾은 영등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축제가 영등굿이다.

제주사람들의 영등신앙은 여러 가지 속설을 만들어낸다. 영등신은 어디에서 왔는지, 올해는 영등할망이 딸을 데리고 왔는가?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가, 영등신은 제주도에 와서 어떤 일들을 하고 가는가, 영등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들을 조심해야 하는가 등을 하나하나 밝혀냄으로써 해마다 다른 바람의 내용이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한해의 운세도 달라진다.

영등신은 영등할망으로 대표되지만, 영등신이 여러 식물을 거느리고 제주에 찾아온다는 속설도 있다. 영등달이 되어 영등신이 제주에 꽃구경을 올 때, 영등하르방, 영등할망, 영등대왕, 영등별감, 영등죄수, 영등호장, 영등우장 등 식물을 데리고 오는데, 비웃을 입은 영등우장이 오면 비가 오고, 두터운 솜 외투를 입은 영등이 오면 그해 영등달에는 눈이 많이 온다는 것 등이다. 또한 제주의 영등달은 날씨도 춥지만 습기가 많아 빨래감이 잘 마르지 않고 구더기가 끈다고도 한다. 이렇듯 제주의 영등굿은 겨울과 봄의 전환기에 찾아오는 제주의 무서운 추위와 관련이 많다.

150여 년 전 홍석모에 의해 저술된 「동국세시기」, 500년 전 노사신 등에 의해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을 보면 “제주도의 풍속에는 이 달에 배타는 것을 금기로 한다”는 언급과 함께 대규모의 공동제인 영등굿을 소개하고 있다. 제주도 영등굿은 제주도라는 지리성, 해양기상, 해녀사회가 그들의 생업과 끊임없이 함수관계를 가지는 가운데 발생해 전승돼왔다.

〈출처: 제민일보 글/ 현순살〉



### 협회 임직원 경조사 [www.kst.or.kr](http://www.kst.or.kr)

-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 감사실 선임행정원 안원영 빙부별세(2007. 3. 4)
- ▲ 부산지부 선임검사원 김종대 모친별세(2007. 3. 5)
- ▲ 부산지부 선임검사원 김경환 장인별세(2007. 3. 18)
- ▲ 태안지부 수석검사원 안영화 모친별세(2007. 3. 19)



## 알리는 말씀

검사협회 소식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협회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발간하는 선박검사기술협회의 홍보지입니다. 협회소식 및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정보, 모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글을 게재코자 하오니 다양한 분야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연락처 : TEL 032-260-2226 / FAX 032-260-2315 / E-MAIL [su7412@kst.or.kr](mailto:su7412@kst.or.kr)

